



숲속 무인점포

이유리

“단 한 가지만 지켜주면 돼요. 허락된 것 외에는 아무거나 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준다면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 이곳이 개방될 때마다 올 수 있습니다. 함께 오고 싶은 사람을 초대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약속을 지키면 한 달 뒤,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곳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될 겁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곳은 문을 닫게 됩니다.”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내게 물었어요.

“넌 여기 어떻게 왔어?”

“무인 문구점에 갔다가 광고를 보고 신청했는데 당첨되었어.”

“와! 나랑 비슷하다. 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다가 응모했는데 당첨됐거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이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어요.

“우와! 나도! 난 무인 편의점에 갔다가 응모하게 된 거야!”

한 달 전쯤이었어요. 단골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고른 후 계산하는데, 키오스크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타났어요.

‘한 번도 계산을 빠트리지 않은 모범 어린이네요. 숲속 무인점포 방문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응모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숲속에 무인점포가 있다고? 숲속에 있는 무인점포는 어떤 곳일지 궁금해졌어요. 더구나 당첨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공짜라니 더더욱 가고 싶어졌지요. 그렇게 응모하게 되었는데 운이 좋게도 당첨이 된 거예요. 와서 보니 아이들만 당첨된 것은 아니었어요. 어른들도 제법 많았어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른들은 무인가게뿐 아니라, 배달앱 주문, 후기 등 다양한 사연으로 당첨되어 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처럼 모범 어린이들만 온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우와! 여기 진짜 좋은데! 도대체 언제 생긴 거래?”

“글쎄..., 이렇게 깊은 숲속에 이런 테마파크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는데.”

“그건 그렇고 여기 있는 가게는 모두 CCTV도 없는 무인점포라고 초대장에 적혀 있던데, 거짓말은 아니겠지?”

“왜 이렇게 반가워하시나? 뭐 다른 계획이라도 있으신 건가?”

“하하하! 아니 다른 계획이라니?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다니? 법 없이도, 아니 CCTV 없이도 살 사람으로 보이는데!”

“으하하! 그건 그렇고, 난 말이지! 초대해 놓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후기를 살벌하게 쓸 작정을 하고 있다고!”

구석에서 무리를 지어 떠드는 어른들은 정말 무슨 나쁜 계획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 소리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하늘색 모자를 쓴 대장 선생님이 다시 강조하기 시작하셨어요.

“허락된 것 외에는 아무거나 가져가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은 힘차게 “네!”라고 말했지만, 좀 전 그 어른들은 음흉하게 웃고만 있었어요. 근심스러운 얼굴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던 대장 선생님이 고개를 돌리며 어린이들이 있는 쪽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출발할 겁니다. 어린이 보호자들께서는 함께 가는 것이 아닌, 저희가 마련해 놓은 쉼터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이가 약속을 지키면 한 달 뒤 이곳을 함께 구경할 기회가 생기니 희망을 품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누구 아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아저씨가 성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어..., 잠깐만요! 이 넓은 곳을 아이들이 전부 걸어서 다니는 건가요? 시키는 대로 차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왔어요. 그 바람에 우리 아이는 벌써 지쳐버렸다고요. 사실 여기까지 차를 타고 와도 되지 않았나요?”

그러자 다른 아이 부모님도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바쁜 아이를 초대해 놓고 구경하기 전에 기운을 몽땅 빼버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지금 공짜라고 갑질하는 건가요?”

“지정된 장소에 차를 놓고 걸어오라는 것은 그 정도도 걷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 넓은 곳을 구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긴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낸 겁니다. 저희는 약속대로 걸어온 사람을 믿고 이곳을 개방하는 겁니다. 첫 약속을 지켜낸 사람은 다른 약속도 지키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제야 그냥 계속 차를 타고 가자던 아빠 말을 거절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마터면 구경도 못하고 그냥 돌아갈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걸어오길 잘했다고 생각한 나와는 달리 계속 화가 나는 어른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런 어른들을 달래기라도 하듯 멀리서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긴 행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와! 지붕이 없는 꼬마 자동차였어요. 그것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닌 자동으로 움직이는!

“숲속 테마파크를 운행하는 무인 자동차입니다.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무인점포가 있는 곳에서는 정차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고, 참가비 없는 거 확실한 거죠? 구경 다 하고 추가 비용 내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안내문에 적힌 그대로 참여자들이 지불할 비용은 없습니다. 테마파크 안에 있는 상점을 구경하다가 저희가 나눠드린

코인을 내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입하면 됩니다. 대신 상점에 진열된 상품만 선택해야 하며, 코인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다른 상품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자, 모두 원하는 차에 올라타세요.”

대장 선생님 이야기가 끝나자 저마다 원하는 차에 올라탔어요. 그렇게 숲속 테마파크 여행이 시작되었답니다.

숲속 무인점포는 어떤 모습이며, 그곳에서는 어떤 물건을 팔지 궁금하기는 했지만, 자동차 안에서 바라보는 숲속 정경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고 구경할 거리가 많았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저기야! 저기! 저기에 건물들이 있다고!”

숲속 무인점포들이 늘어난 곳으로 다가가면 다가가수록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자동차가 멈추자 너 나 할 것 없이 가게를 향해 뛰어갔어요. 숲속 무인점포들은 모두 숲속과 어울리는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과일 모양으로 된 가게로 들어가니 과일로 된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나무로 된 가게의 장난감 판매대는 아이들로 북적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어요. 다람쥐 모양의 가게에는 예상한 것처럼 도토리도 된 상품들이 있었고요. 재미있는 가게가 정말 많았어요. 그렇게 신나게 다니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가게는 아름다운 새 모양을 한 가게였어요. 그곳에는 새 모양으로 된 인형과 장식품, 알 모양으로 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코인으로 나는 색색으로 장식된 알들을 구입했어요. 그렇게 모든 코인을 쓰고 한가롭게 가게 안을 구경하던 중 한쪽 구석 나무 천장에 나무줄기가 매달린 것이 보였어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나무줄기를 당겼는데 줄기를 따라 계단이 바닥으로 쭈르륵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계단을 타고 조심조심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시계가 덩그러니 홀로 세워져 있었어요. 시계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고요.

‘동지 안의 알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살펴보니 시계 아래에 동지가 있었어요. 내가 동지를 발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계가 울리며 시계 속에서 투명하게 빛나는 새가 나왔어요. 빛나는 새는 시계 주위를 날아다니며 아름답게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시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곧 동지에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기대감에 차서 얼른 동지를 바라보았지만, 동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쭈그리고 앉아 “이상하다, 분명 무언가 여기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라고 말하며 동지 안을 만져보았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동지 바닥에 손이 닿기 전에 무언가가 만져졌어요. 둥글둥글하게 전해지는 느낌은 분명 알이었어요.

“와! 이건 알이야! 그것도 투명알!”

나는 터져 나오려는 목소리를 손으로 막고 속으로만 외쳤어요.

‘이렇게 신기한 걸 가지게 되다니!’

그때 내 귀에 대장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져가면 안 돼요!”

하지만 나는 도저히 투명 알을 놓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신비한 알을 가질 기회는 다신 없을 테니까요. 나는 투명 알을 얼른 어깨에 멘 가방에 넣었어요. 그렇게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무인점포에서 나왔어요.

떠나기 전 선생님들은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셨어요.

“만약 허락된 것 외에 무언가 가져왔다면 잠시 시간을 줄 테니 도로 놓고 오세요.”

선생님 이야기가 끝나자 어른들 몇이, 아이들 몇이 무언가를 들고 무인점포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나는 투명 알이라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투명 알을 가진 채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집으로 출발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을 놓고 있는데 떠날 준비를 하는 우리를 향해 대장 선생님이 다시 물었어요. 놓고 갈 것이 없느냐고요. 신기하게 대장 선생님이 걸음을 멈추고 물어보는 사람마다 무언가를 놓고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대장 선생님은 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지요. 하지만 나는 괜찮았어요. 내가 가져온 건 투명 알이었으니까요. 대장 선생님을 속인 나는 다시 숲을 방문할 수 있는 자격까지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숲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숲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알이 점점 커지면서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께 들킬까 봐 어깨에 멘 배낭 속에서 알을 꺼냈어요. 그리고 더 큰 가방에 얼른 집어넣었어요. 빛이 새어 나오는 걸 막기 위해 입과 있던 점퍼를 벗어 배낭을 덮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알은 커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큰 가방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알이 자꾸 커져서 결국 가방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들킨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너 이걸 어떻게 가져왔니?”

“엄마! 처음에 알이 투명 알이었어요. 크기도 아주 작았고요. 그런데 점점 커지면서 빛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는 차를 돌리라고 했어요. 알을 돌려주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아빠가 보석처럼 반짝이는 알을 보더니 욕심이 났는지 그냥 가져가자고 했어요. 엄마가 돌려주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빠는 아무거나 가져가면 안 돼요,라고 말하던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니 괜찮다고 했어요. 정 마음이 불편하면 한 달 뒤, 다시 올 때 그때 돌려주자고 하면서요.

이렇게 알은 우리 집 거실 한가운대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알이 보석 같으니 분명 안에서 진귀한 새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엄마는 방에서 내가 가져온 알이 어떤 새의 알인지 알기 위해 검색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러는 사이 조금씩 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는 뭐가 나올까, 궁금해하며 알을 관찰하느라 알 앞에 얼굴을 바짝 대셨어요. 나도 아빠를 따라 얼굴을 들이밀었고요. 그때 알에서 더 강한 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화들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는 순간 알 앞에 혼자 얼굴을 들이밀고 있던 아빠가 알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무 놀라서 엄마에게 아빠가 알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소리쳤지만, 엄마는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대장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제는 엄마한테까지 거짓말을 한다면서 오히려 야단을 치셨지요. 그렇게 아빠는 알에 완전히 빨려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야 방에서 엄마가 나왔어요. 아무리 찾아도 우리 집에 있는 것과 같은 알을 찾을 수 없다면서요. 엄마는 아빠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빠가 알에 들어갔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은 깨진 곳 하나 없이 그대로였으니까요. 아빠에게 전화를 건 엄마는 어디에 있는 거냐며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아빠는 알 속에 갇혀서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엄마는 아빠와 내가 알을 돌려주기 싫어 거짓말을 한다면서 화를 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내 말을 믿지 않는 엄마 때문에 속이 상해서 울음이 나왔어요. 나도 아빠와 통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려는데 알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알 속에 있는 아빠가 다치는 것이 아닐지 걱정되어 알이

흔들리지 않게 꼭 껴안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알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대신 아빠가 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방에서 나왔을 때는 거실에서 아빠만 혼자 멀뚱멀뚱 알을 보고 있었어요.

알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엄마는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나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말을 믿지 않는 엄마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알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이 속으로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며 알을 만졌는데 그때 알이 다시 빛을 내며 나는 밖으로, 엄마는 알 속으로 빨려 들어왔어요. 아빠와 나는 알게 되었어요. 누구 한 사람이 대신 들어가지 않는 한 엄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어요. 나는 대장 선생님이 엄마를 구할 다른 방법을 알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알을 들고 아빠와 함께 초대받았던 숲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떡하면 좋나요! 숲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알이 다시 작아지면서 투명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도 알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걸까요?

갑이 난 나는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뛰어내려 대장 선생님을 찾았어요. 나는 대장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차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투명하게 변해버린 거지요. 알을 찾으려고 차 안을 더듬더듬 만져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대장 선생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으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돌아가라고 했어요. 나는 울며 매달렸어요.

“선생님! 저는 가져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져갔어요. 잘못했어요. 제게 기회를 주시면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게요.”

그렇게 울면서 다시 차 안을 더듬어보는데 알이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알이 깨질 듯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빠에게 알이 깨질 것 같다고, 이러다 엄마를 찾을 수 없게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어서 알에서 손을 떼고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눈을 번뜩이며 대장 선생님에게 여기를 만져보라며 알 가까이 가게 했어요. 나는 아빠가 어떤 의도로 선생님을 투명 알에 다가가게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대장 선생님을 알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었어요. 모두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나는 선생님을 밀치고 알 속으로 들어갔어요.

엄마와 아빠가 투명하게 변한 알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손으로 더듬는 것이 보이네요. 알을 깨뜨리면 어쩌나 두려워하면서 말이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대장 선생님이 하늘을 향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숲속에서 빛나는 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시계에서 나왔던 바로 그 새였어요. 빛나는 새는 내가 들어있는 알을 조심스럽게 발로 움켜쥐고 자기가 있던 숲속 무인점포를 향해 방향을 돌렸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엄마가 울고 있는 것이 보여요. 아빠도 울고 있네요. 나도 슬퍼서 마구 눈물이 나오. 그렇게 나는 정신을 잃었어요.

다시 깨어났을 때 본 것은 어미 새의 날개였어요. 어미 새는 날개로 투명 알을 쓰다듬어 주고 있었어요. 마치 부모님과 헤어져 울고 있는 나를 달래주듯이요. 나는 어미 새에게 미안했어요. 내가 어미 새와 알을 헤어지게 했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새는 후회하는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날개로 나를 쓰다듬듯 알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쓰다듬을 때 이런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넌 끝에 가서는 네 양심을 지켰잖아. 사실 이건 네 마음의 알이란다. 이제 밖으로 다시 나가게 되면 이렇게

투명하게 빛나는 네 양심을 지켜야 해! 알았지?”

나는 숲속 무인점포를 향해 출발하기 전 대장 선생님께 “네!”라고 약속했던 그 마음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때였어요. 내 몸이 빛처럼 투명하고 가볍게 알에서 나가게 된 것이! 때마침 대장 선생님을 따라 엄마, 아빠가 와 계셨어요. 아빠가 나를 껴안고 울며 다 아빠 잘못이라고 했어요. 나는 빛나는 새가 내게 해준 말을 그대로 아빠에게 해주었어요.

대장 선생님의 배웅을 받고 떠나는데, 우리 차를 지나치며 몇 대의 자동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섰어요. 운전석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새까만 알이 꽉 들어차 있었어요. CCTV도 없는 무인점포라고 좋아하던 아저씨들 목소리가 그 새까만 알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